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76호 [루계 제23393호] 주제100 (2011)년 3월 17일 (목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밟들어나가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해군 제597군부대관하 공장을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해군 제597군부대관하 공장을 시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펼펼 휘날리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를 비롯한 구호들이 나붙어 있는 공장에는 수령결사용의 열풍이 세차게 굽이치고 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께서 도착하시자 공장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선군의 가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혁명하게 령도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정명도동지, 현철해동지, 허명수동지, 상장 오철산동지가 동행하였다.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공장의 책임일군들이 맞이하였다.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한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선군혁명도를 충직하게 밟들어갈 불타는 일념을 안고 련일 거세찬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선군의 나날들을 자랑찬 위훈으로 빛내어가고 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접보고를 받으신 다음 공장책임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혁신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물소 터전을 잡아주시고 현대적인 병기창으로 꾸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 있는 사적물들과 사적자료들을



공장을 찾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제50(1961)년10월3일

보시면서 잊지 못할 역사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속에 공장은 자랑찬 승리의 한길을 걸어올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로동계급은 수령님의 대해 같은 은덕을 영원히 심장깊이 간직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오랜 기간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혁명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노동자, 기술자들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한 선군시대공로자들의 소행자료들을 보시고 활일의 병기창의 유격대원들이 지니었던 짙黜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살

하시면서 그들의 애국심을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기술장비상태와 생산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해하시였다.

불꽃을 날리며 기운차게 돌아가는 각종 공작기계들과 쉬임없이 쏟아져나

며 투쟁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기뻐

하시면서 그들의 애국심을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기술장비상태와 생

산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해하시

였다.

불꽃을 날리며 기운차게 돌아가는

각종 공작기계들과 쉬임없이 쏟아져나

오는 가공품들을 보시고 공장의 로동계급이 맡겨진 전투과제를 원만히 수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공장의 로동계급이 지난 기간 혁명적군인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혁명무력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보위는 최대의 애국이라는 성스러운 시대적사명감을 자각하고 모든 전선에서 충성의 구슬땀을 바쳐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기 위해 혼신분투하고 있는 군대와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기에 우리의 조국은 난공불락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이 맡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지난날에 그리하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밟들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시하시면서 로력혁신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공장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친히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여 나아갈 길을 훠황히 밝혀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정을 부어주시며 고무격려해 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끓어오르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해 하면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영예로운 과업을 빛나게 판철하여 국방력 강화에 적극 이바지 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종업원들과 가스화건설자들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시고 친필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종업원들과 가스화건설자들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시고 은정어린 친필을 보내시였다.

◀ 2011. 3. 10
김정일

한글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종업원들과 가스화건설자들은 선군조선로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현지지도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결사

판철해나갈 맹세를 담아 다음과 같은 편지를 삼가 올리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삼가 드립니다

언제나 뵙고싶고 가까이에 모시고 싶은 경애하는

장군님

오매에도 그립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지난 1월 30일 기업소에 또다시 모신 꿈없는 경성과 환희에 넘쳐지는 우리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종업원들과 가스화건설자들은 장군님께서 주신 강령적과업을 결사판철하고야말 불타는 맹세를 담아 삼가 이 글을 올립니다.

우리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하루빨리 강성대국의 높이

에 올려세우시려고 올해에도 정초부터 초강도 강행군길을 쉼없이 걸고걸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편에 없는 강추위도 미だ하지 않으시고 기업소를 또다시 찾아주실줄을 우리들은 정말 물렀습니다.

언제나 모시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현실로 끌어우기 못한 자책감으로 모대기며 따뜻한 봄날에는 왕공의 기쁨을 얻고 장군님을 꼭 모시고싶었던 저희들인데 추워도 제일 추운날 또다시

건설장에 찾아오시여 그동안 정밀 일을 많이 했다고 거듭거듭 치하해주면서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셨으니 그 온정이 너무도 고마워 우리모두는 울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짧은 기간에 최첨단의 물전체공정이 건설된데 이어 현대적인 가스화공정까지 웅장하게 일

떠서게 된 이 거창한 변혁은 정녕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불면불휴의 고고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습니다.

가스화암보니아생산공정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당시에는 공사를 하루빨리 끝내자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은 우리 로동계급의 심장에 불길을 지펴주었습니다.

그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있어 우리들은 수십년세월

총총이 갈린 낮은 기초들을 완전히 들어내고 새 건축물

들을 일떠세우는 격렬한 전투를 벌리면서도 어려움도

힘겨움도 다 이겨낼수 있었습니다.

오시여도 좋은 날, 좋은 길이 아니라 심한 무더위와 장마비가 쓰러져내리는 삼복철과 맷잔 추위와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에 오시고 가스화공정건설에 필요한 설비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야밤삼경의 천리길도 마따

하지 않으시며 래원과 룽성을 비롯한 이 나라 방방곡곡에 세기신 어버이장군님의 그 자자자육을 눈물속에 따라걸으며 우리들은 장군님과 뜻도 숨결도 같이 할 결의를 다졌습니다.

오늘 때마다 우리들에게 감사를 주시고 한가슴 가득히 선물도 안겨주시며 소박한 예술조조공연도 보아주시면서 선군시대 군중문화예술의 본보기라고 높이 내세워주신 어버이장군님의 그 자자자육을 눈물속에 따라걸으며 우리들은 장군님과 뜻도 숨결도 같이 할 결의를 다졌습니다.

언제나 모시고 싶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이끌어주시면서 소박한 예술조조공연도 보아주시면서 선군시대 군중문화예술의 본보기라고 높이 내세워주신 어버이장군님의 그 자자자육을 눈물속에 따라걸으며 우리들은 장군님과 뜻도 숨결도 같이 할 결의를 다졌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언제나 뒷발이나가는 공격정신으로 우리들을 이끌어주시고 비료생산장과 가스화공정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즉석에서 풀어주시면서 주체비료생산체계를 톤트히 세워주시여 오늘은 우리 기업소가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던대로 선군시대의 주체적이며 종합적인 비료생산기지로 새롭게 변모되고 있습니다.

우리식의 새 비료생산공정을 세우고 봄듯이 일떠세우는 나날에 우리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만 하면 언제나 승리하며 우리 강성대국건설위업은 장군님께서 세워주시는 리정표를 따라 드림없이 전진 하리라라는 신장깊이 신념으로 새겼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

우리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답게 선군조선로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결사판철함으로써 장군님을 실천으로 결사옹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자력갱생이 제일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기고 장군님께서 키워주신

당과 배짱으로 가스화대상의 중요설비장치물을 우리 지혜와 기술,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제국주의자들의 거만한 고대를 꺾어버리겠습니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는 숭고한 애국의 한 마음으로 1계열마감공사를 불이 번쩍나게 해제켜 부문별 시운전을 끝내고 주체비료가 폭포처럼 쏟아지게 함으로써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철의 진리를 온 세계에 다시금 보여주겠습니다.

우리들은 물건해공정의 CNC화를 실현하며 가스화공정의 CNC화를 위한 준비사업을 잘하여 기업소를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기업으로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우리 당의 최대의 중대사로, 최고의 투쟁목표로 정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높은 뜻을 반들어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면서 생산돌격전을 드세차게 벌려 기어이 비료산을 더 높이 쌓겠습니다.

이와 함께 양양체식당과 로동자합숙을 훌륭히 건설하여 종업원들이 실지 그 덕을 보게 하며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려 전투장마니에 혁명적기魄과 전투적량만이 차넘치게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

장군님의 안녕과 건강은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고 최대의 행복입니다.

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김일성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와 태양민족의 영원무궁을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종업원들과 가스화건설자들이 드립니다

주제100 (2011)년 2월 12일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종업원들과

가스화건설자들이 드립니다

모든 힘을 집중하여 봄철 영농전투를 힘있게 다그치자

모판용흙보산비료생산을 왜 늘였는가

온천군 송현협동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공동시설에 세시된 전투적과 업을 만들고 올해 농사를 잘 칠기 위한 불철영농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요즘 온천군 송현협동농장에서는 당면하게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모판용흙보산비료생산에 더 큰 힘을 넣고자 있다. 그 깊은 무언인가.

위대한 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군들이 끓은 지도방법과 품질을 소유하자면 정치 실무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얼마전 불철영농전투에 진입한 작업반들은 씨뿌리기 준비장을 형을 하나나마 떠져보려 판리원장은 한가지 짚이는 것이 있었다. 사설 레년보다 주운 날씨가 수십일간 지속된다. 올해 거울철에는 땅이 깊이 언제다가 3월에 들어서서도 일기상태가 씨원치 못하였던 것이다.

(종전의 방법대로 씨뿌리기를 한다면 파연 실한 모를 키워낼 것인가. 앞으로도 일기 조건이 이렇게 불리해진다면...)

판리원장의 생각은 깊어졌다. 일군들의 작전과 지휘에 따라 농장의 혁신성과가 크게 좌우된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사색을 깊이하고 끓은 대책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일군들에게 좋은 냥도 물을 구들재와 함께 흙보산비료를 뿐만 아니라 온도가 더 올라모를 틈틈하게 키울 수 있었다. 결과 실한 모를 제철에 냥으로 씨 알곡소출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이다. 확실히 일반화할 가치가 있었다.

방도는 명백해졌다. 모판용흙보산비료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놓고 열린 협의회에서 판리원장은 농장일군들과 함께 제 6작업반으로 내려갔다. 이 작업반은 지난해에 블리한 일기조건에서도 실한 모를 키워낸 단위였다. 해마다 다른 작업반과 차이 나는 점이 있다면 모판용흙보산비료를 더 많이 낸 것이다. 모판을 만들 때 질 좋은 흙보산비료를 더 많이 내었더니 거울철동안에 염기 땅이 빠리 놓았다.

더 우기 좋은 것은 씨뿌리기를 했던 다음 그우에 흙보산비료는 말이 있듯이 불철영농전투에 뿐만 아니라 농장원들이 일정하게 뿌리고 흙을 얹어주면 모의 영양상태가 훨씬

좋아진다는 것이었다. 또한 불철날씨가 내려갈 때 모판에 뱃물과 구들재와 함께 흙보산비료를 뿐만 아니라 온도가 더 올라모를 틈틈하게 키울 수 있었다.

이때 일군들은 결린 문제를 찾아 제해에 물어주었다.

원료회보문제를 해결한 실례를 놓고보자. 갑자기 많은 흙보산비료를 생산하고자 당시 당장 걸린 것이 그 원료였다. 니란도부식도원천도 부족하였던 것이다.

이것을 포착한 일군들은 팔을 걷고 달려왔다. 밤잠을 잊고 사력을 다해 이쓰는 과정에 일군들은 판리원장의 의견대로 고장에 풍부한 헤엄도리를 이용하여 흙보산비료를 생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모가 자라는 시기의 날씨가 불리하게 조건을 반드시 타산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땅의 보약인 흙보산비료를 더 많이 내었더니 거울철동안에 염기 땅이 빠리 놓았다.

더 우기 좋은 것은 씨뿌리기를 했던 다음 그우에 흙보산비료는 말이 있듯이 불철영농전투에 뿐만 아니라 농장원들이 일정하게 뿌리고 흙을 얹어주면 모의 영양상태가 훨씬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된 좋은 계기로 되었다. 그후 모든 작업반들이 해염토로 흙보산비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지펴졌다.

사회주의경쟁에서 앞장선 제 1, 6작업반의 뒤를 모든

작업반들이 바짝 따랐다.

일군들은 아래에도 당개를

늦추지 않았다. 흙보산비료생

산에서 질과 속도를 다같이 보

장할 때 씨뿌리기의 성과를 담

보할 수 있다. 문제를 이렇게

본 일군들은 대중의 양양된 열

의에 맞게 흙보산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제해에 세

웠다. 그에 따라 실정에 맞는

생산방법이 도입되고 기사장과

작업반기술원들의 역할이 더욱

불리한 일기상태에 농장원들

모두가 흙보산비료생산에서 나

서는 과학기술문제들을 정확

히 알고 일해 나가게 되었다.

결과 작업반들이 모판용흙

보산비료가 좋은 거름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작업반초급일군들과 함께 협업으로 흙보산비료를 만들여보았다. 이렇게 만든 흙보산비료는 흙보산비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흙보산비료에 뭇지 않았다. 이것은

농장원들 모두가 흙보산비료를

찾아서 품질과 조건을 반드시 타산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땅의 보약인 흙보산비료를 더 많이 내었더니 거울철동안에 염기 땅이 빠리 놓았다.

더 우기 좋은 것은 씨뿌리기를 했던 다음 그우에 흙보산비료는 말이 있듯이 불철영농전투에 뿐만 아니라 농장원들이 일정하게 뿌리고 흙을 얹어주면 모의 영양상태가 훨씬

좋아진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작업반들이 흙보산비료를 찾

아니면 흙보산비료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본사기자 주창일

그들이 흙보산비료를 찾을 때

는 일군들은 흙보산비료를 찾

았던 것이다.

벼 씨뿌리기로 전투이다. 농업부문 일군들은 어

떻게 하나 올해 농사를 잘 지어 당시 구상을 빛

나게 실현하기 위해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씨뿌리기작전과 지휘를 폐

기위해 전투적으로 하여야 한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생활

고조의 불길높이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키어기점

령하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혁명적열정을 암고

제작업반기술원들의 역할이 더욱

불리한 일기상태에 농장원들

모두가 흙보산비료생산에서 나

서는 과학기술문제들을 정확

히 알고 일해 나가게 되었다.

결과 작업반들이 모판용흙

보산비료가 좋은 거름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제작업반기술원들은 흙보산비료를 찾을 때

는 일군들은 흙보산비료를 찾

았던 것이다.

종자처리는 씨뿌리기의 첫 공정이다. 농장기

술일군들은 종자처리장에 놀내려가 씩씩우기

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종자처우기를

시킬 때 씨뿌리기는 시계와 저울, 종자주

머니 등 씨뿌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수단들을 효과 있게 이용하여 모판 평당 씨뿌리

평량을 정확히 보장하여야 한다.

모판에 부식토와 흙보산비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유기질비료를 충분히 내고 벼모가 충하

여기 유기질비료를 주제로 향후에 보장한

상태에서 씨뿌리기를 하도록 해야 한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벼모판씨뿌리

기와 강성이 씨불임을 비롯한 봄철씨뿌리기

를 주제농법의 요구대로 와탁타

하고 전쟁함으로써 농업 근로자들이

농사의 주인은 농업 근로자들이다. 농업 근로

씨뿌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촌경리부문에서 지대별, 필지별특성과

농작물의 생물학적성에 맞게 품종을

배치하고 제철에 씨를 뿌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군들은 아래에도 당개를

늦추지 않았다. 흙보산비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지펴졌다.

그들모두가 세로운 결심을

하고 흙보산비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의 계획을 세웠다.

그들이 흙보산비료를 만들기

</

